



북한산 석재, 중국산 석재 대체 기대

기사입력 2007-12-14 07:59

태림산업 황해북도 장풍석산 석재공장 준공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가 14일 황해북도 장풍석산에서 본격적인 원석 생산에 나섰다.

남측의 (주)태림산업과 북측 업체가 절반씩 합작해 세운 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는 이날 오전 장풍군 월고리 장풍광산에서 남측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 및 판석공장 준공식을 연다.

태림산업은 2005년 9월 북측 개선총회사와 화강석 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작년 4월 개선총회사 및 아리랑회사와 석재공장 설립에 합의해 개성시 덕암리 216만㎡ 부지에 합영회사를 설립했다.

이 합영회사는 작년 12월부터 남포시 룡강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공해 각종 석재를 생산해 왔으나 회사와 거리가 멀어 개성공단에서 25km 떨어진 장풍석산을 개발하게 됐다고 태림산업측은 밝혔다.

합영회사는 또 판석공장도 함께 준공함으로써 매년 13만t의 원석으로 건축석, 상석, 묘석, 조각품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석재 제품은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것은 물론 육로를 통해 남한으로 운송돼 시판될 예정이다.

태림산업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6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생산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라며 "저렴한 가격의 건축용 제품을 개성공단 등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 11일부터 시작된 문산-봉동 철도 운송을 통해 남측 석재시장에 경쟁력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석재시장 대부분을 잠식한 중국산 석재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s@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1858864>
